“중생 위로하는 성보 복원 뜻 깊어”

화엄사, 국보 사사자삼층석탑 보수복원 회향

9월 29일 회향식서 공개
화엄사 상징…7년간 불사
계단길 조성, 접근성 높여
복원 기념 학술 세미나도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연기 조사의 극진한 효성을 표현한 국보 제35호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이 7년여의 복원불사를 마치고 대중에 선보였다.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9일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지휘 아래 보수복원 작업을 진행한 사사자삼층석탑의 보수복원 불사 회향식을 봉행하고, 지난 2013년부터 석탑 해체와 보수작업을 통해 새롭게 탄생한 사사자삼층석탑 모습을 공개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8세기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석탑으로 2단의 기단 위에 3층의 탑신을 올린 형태이다. 3층 기단에는 암수 네 마리의 사자를 모퉁이에 세워놓은 구조인데 사자의 형상은 허공을 바라보며 입을 벌린 상태로 날카로운 이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특징이다.

또한, 사사자에 둘러싸인 채 합장을 하고 선 어머니상이 조각되어 있는데 이는 창건조 연기 조사의 어머니로 알려졌다. 석등을 머리에 이고 무릎을 꿇고 앉아 탑을 향해 있는 스님상은 어머니께 차를 공양하는 연기 조사의 극진한 효성을 표현해 놓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향식에는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설정 스님을 비롯해 김현모 문화재청장, 문금주 전남도행정부지사, 김순호 구례군수 등이 참여해 불사 회향을 축하했다.

명선 스님은 치사를 통해 “코로나19로 나라가 어려운 시기다. 석탑이 새롭게 잘 정비된 인연공덕으로 환란도 종식되고 국민들도 평안한 생활을 찾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회향사를 통해 “사사자삼층석탑의 모습이 희노애락과 국민의 애환을 담고 있는 모습이다. 이번 회향을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 하는 중생을 위로하는 석탑의 모습이 다시 복원되어 뜻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9월 29일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 복원 회향식 직후 참석 내외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7년 간의 복원불사를 마친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은 이날 대중에 공개됐다.

석탑은 2011년에 구례군에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남동쪽으로 기울어 있고 기단부의 균열 · 절단 · 벌어짐 등 다수의 구조적 불안정이 확인됐다. 또한 석탑은 오랜 세월 비, 바람 등 기후의 영향으로 손상되면서 하층 기단 내부를 채우고 있던 적심이 유실되어 구조적 불균형에 의한 석재의 파손, 변위 등이 발생했다. 대부분의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사자상 상층 기단갑석에도 구조적 균열은 물론, 미세 균열이 나타났다. 이후 2012년 문화재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해체보수를 결정했고, 2016년에 해체됐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의 보수, 복원에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구례군, 화엄사가 다년간 힘을 보탰다. 복원된 사사자삼층석탑 내에는 사부대중의 발원을 모아 사리함을 조성, 진신사리를 봉안했으며 사리공 5곳에는 오방법신불을 모셔 환란으로 시달리는 시방세계의 안녕을 기원했다. 탑의 맨 위층에는 〈화엄경〉의 정수인 ‘보현행원품’을 김경호 국가무형문화재 사경장이 직접 서사해 안립함으로써 불법장엄의 공덕을 더했다.

화엄사 사사자삼층석탑을 참배하기 위한 국민과 불자들의 접근성도 높였다. 화엄사는 이번 보수복원 불사를 통해 각황전 좌측 108계단을 조성했으며, 이를 통해 누구나 쉽게 사사자삼층석탑을 쉽게 참배할 수 있도록 했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18년부터 석탑에 대한 체계적 학술조사, 수리기술 연구, 보존처리 등을 시행하여 약 3년만인 2021년 9월 석탑의 조립을 마쳤다. 과학적인 보존처리와 구조보강을 통해 원래 석재를 대부분 재사용하여 석탑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한 점이 의미가 깊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엄사는 사사자삼층석탑 해체복원을 기념해 하루 전인 9월 28일 화엄원에서 ‘지리산 구례 차문화와 화엄사의 전통문화유산Ⅱ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前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 부도탑 제막

화엄사 9월 29일 제막식 봉행

화엄사(주지 덕문)는 9월 29일 도광 · 도천 스님 합동 추모재를 맞아 前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을 지낸 혜광당 종산 스님(1924~2020)의 부도탑 제막식을 갖고 스님이 남기신 정진의 뜻을 기렸다.

합동 추모재는 화엄사 선다회의 차 공양을 시작으로 입정, 생전 도광 · 도천 스님의 육성법문, 종일 스님의 행장 소개에 이어 화엄사 조실 명선 스님과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설정 스님의 헌다와 문도 스님의 헌화로 진행됐다.

부도밭에서 거행된 종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에서 참석한 스님들은 부도탑 제막 이후 헌다, 헌화를 통해 종산 스님의 가르침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광 · 도천 스님 부도탑 옆에 세워진 부도탑은 전형적인 형식으로 연꽃좌대 위에 8각 옥개석과 8면의 창이 있고, 창에는 인왕상을 비롯해 불교상징물과 종산 스님 명문이 새겨져 있다.

한편, 종산 스님은 1949년 자운사에서 도광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출가했다. 1953년 전남 강진 백련사 만덕선원에서 안거에 들어간 이래 43년간 대흥사, 통도사, 해인사, 범어사, 용주사 중앙선원 등 전국을 돌며 수행 정진했다.


화엄사는 9월 29일 前 조계종 원로의장 종산 스님의 부도탑 제막식을 봉행했다.

1988년 중앙종회 임시의장, 1990년 보살사 직지선원 조실, 2000년 천은사 방장선원 조실, 2002년 구산선문 태안사 원각선원 조실, 2012년 화엄사 선등선원 조실 등으로 추대됐으며, 1997년 대한불교조계종 최고 의결기구인 원로회의 의원에 선출된 뒤 그해 제6대 원로회의 의장, 2007년 제7대 원로회의 의장으로 추대됐다. 2020년 6월 23일 법랍 72년 세납 97살에 원적에 들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지역 어르신 위한 10년 생일상 보시

진안 마이산 탑사 · 쌍봉사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

진안군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 쌍봉사(주지 보경)가 10년째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월 23일 진안 문화의 집 마이홀에서 진안 동부새마을 금고(이사장 조용국), 진무장재가복지센터(센터장 최주연)와 함께 지역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제10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 앞서 진행된 문화공연은 생신축하 케이크 커팅, 자원봉사자들의 큰 절, 지역 가수 김트롯, 서현의 공연과 난타공연, 쌍봉사 만복의 소리 합창단 공연, 마술쇼 등으로 이어졌다.

진안군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의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 배양 운동에 성실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그 맥을 이어왔다”며 “모든 진안군 어르신 모두의 만수무강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마이산 탑사와 쌍봉사는 9월 23일 제10회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도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들이 웃음을 잃지 말고 건강하게 생활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와 김광수 진안군의회 의장 등은 “지역 어르신들을 부모같이 잘 모시겠다”고 약속하며 큰절로 생신을 축하했다.

이번 지역 어르신 생신상 차려드리기는 진안 지역 75세 이상의 어르신 100명을 대상으로 5만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과 기념품이 전해졌다. 행사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60명의 지역 어르신과 30명의 자원봉사자만 참석했으며, 참석 어르신들에게는 별도의 식사비용으로 2만 원 상당의 진안사랑 상품권이 전달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광주어청련, 영유아 · 어린이 수계산림 봉행

9월 25일 광주 관음사서

제8회 광주 영 · 유아, 어린이 · 청소년 수계산림 법회가 9월 25일 광주 충장로에 소재한 관음사(주지 소운)에서 개최됐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회(대표 동천, 담양 호국사 주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는 전체 22명의 학생이 수계법회를 통해 새로운 어린 불자로 탄생했다.

행사는 명종 5타를 시작으로 증명법사단 등단, 삼귀의례, 삼보사찰(통도사, 해인사, 송광사) 청정수 합수, 청법가, 삼배, 이끌어 주는 말, 오계설법에 이어 수계의식이 진행됐다.

수계식 칠증사에는 전계아사리 도계 스님을 비롯해 효공 스님(나주 녹야원 주지), 동현 스님(신광사 주지), 동천 스님, 소운 스님, 해청 스님(원효사 주지), 지장 스님(동원사 주지) 등이 참여했다.

도계 스님은 법문을 통해 “오늘 수계받은 제자들은 부처님의 가피에 의지해 자신과 이웃과 주변의 모든 인연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언제 어디서든 진리 앞에 어리석지 않고 지혜광명으로 빛나는 불자가 되어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생한 어린 불자들은 향후 어린이, 청소년법회에 참여해 본격적인 배움의 길을 갈 예정이다.

이날 발원을 낭독한 노은찬(법명 화광) 군은 “앞으로 파라미타 청소년법회에 참석해 많은 것을 배워 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광주전남불교어린이청소년연합은 지난 2014년부터 영유아 수계법회를 통해 열악한 지역 어린이 · 청소년포교를 활성화하고, 어린 불자 양성을 이끌며 요리법회, 숲 법회, 탁발체험 등을 진행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광주어청련은 9월 25일 제8회 영유아, 어린이청소년 수계산림을 개최했다.



